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1. 4.29.(금)

보도자료

2011년 4월 29일(금) 16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스마트TV전략팀 양청삼 팀장(☎750-1460)
스마트TV전략팀 김영주 사무관(☎750-1461) kyj1518@kcc.go.kr

방통위, 「스마트 미디어 발전포럼」 출범

- IT와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관점에서 포괄적 정책협의 및 협력의 장 열려-

스마트 혁명으로 시작된 IT와 미디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업계간 상호 성장발전 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4월 29일(금) 오후 4시에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국내 주요 방송사, 통신사, IT제조기업, 인터넷기업 및 관련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스마트 미디어 발전포럼」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스마트 기기 보급이 확산되고 인터넷 중심의 산업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과거엔 별도로 존재하던 IT와 미디어산업, 통신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콘텐츠, 네트워크, 기기제조업체 간의 이해충돌이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분야가 많아지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 발전포럼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정확히 진단하고 콘텐츠-서비스-네트워크-기기 등 생태계 전반의 관점에서 미래 방송통신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IT와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1차 포럼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계영 동향분석실장이 「스마트 시대의 IT 패러다임 변화:IT·미디어·네트워크 기업 간 경쟁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에 대해 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다.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기업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만이 아닌 강력한 플랫폼 경쟁력을 갖춘 Google, Apple 등과의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상황으로, 스마트 시대의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혜를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산·학·연 정책포럼 형태의 스마트 미디어 발전포럼이 생산적 논의와 협력의 장으로 경쟁력 있는 국내 IT와 미디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스마트 미디어 발전포럼은 앞으로 1～2개월 간격으로 개최되고,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의 창구로서 국내 상황에 맞는 정책 개발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장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향후 포럼 논의주제(안)>

- All IP 시대의 통신시장 변화와 통신사업자의 탈통신 전략
- 스마트TV 확산과 방송시장 변화, 정책적 시사점
- 미디어 융합 시대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 플랫폼 기반의 생태계 경쟁과 국내 IT산업 발전 전략
- 스마트 시대의 네트워크 고도화 방향과 투자 활성화 전략 등

붙임 : 스마트 미디어 발전포럼 명단 1부. 끝.

<붙임>

스마트 미디어 발전포럼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비고
학계 (4인)	이 동 기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시장
	홍 대 식	-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제도
	최 양 희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기술
	현 대 원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미디어
업계 (13인)	최 철 호	- KBS 기획예산국장	지상파
	김 성 근	- MBC 디지털기술국장	
	박 영 수	- SBS 기술담당 부본부장	
	김 계 홍	- CJ E&M 매체본부장	유료방송
	김 기 범	- 티브로드 기술담당 상무	
	김 명 섭	- 스카이라이프 전략사업본부장	
	정 혜 승	- Daum 대외협력실장	인터넷
	홍 은 택	- NHN 이사	
	장 병 수	- KT CR부분 대외협력담당 상무	통신
	염 용 섭	- SKT 정보통신연구실장	
	박 팔 현	- LG U+ 전략지원담당 상무	
	권 강 현	- 삼성전자 SMC 전무	기기제조
	서 영 재	- LG전자 LCD-TV 사업부 상무	
유관기관 ·단체 (4인)	최 계 영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김 명 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창의연구본부장	-
	한 수 용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	-
	이 상 현	-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사무총장	-